

구활자본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ld-printed Version Novels' Censored Edition and Nap-bon

유 춘 동 (Yoo, Choon-Dong)**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결 론 |
| 2. 구활자본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의
실태 | <참고문헌> |
| 3. 구활자본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을
통해본 검열의 상황 | |

< 초 록 >

이 글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존재하는 650종의 구활자본 고소설을 검토하여, 이 자료들이 일제강점기 검열본과 납본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 자료들의 검열 과정과 검열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밝힌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구활자본 고소설을 보면 사전에 출판한 형태의 원고(原稿)를 그대로 제출하여 검열을 받았고, 검열은 별다른 지적 없이 대부분 통과했다. 그 근거는 판권지에 기재된 날짜와 검열을 받아 출판 허가가 이루어진 날짜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활자본 고소설의 주된 검열의 요소는 표지에 있었다. 이것은 『죄악의 씨』, 『서해풍파』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앞의 것은 일본 순사를 표지로 삼았다는 점, 뒤의 것은 태극기를 그렸다는 이유에서 검열의 지적 대상이 되었고 이후에 수정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구활자본 고소설은 근/현대문학과 잡지(雜誌), 사회주의(社會主義) 서적과는 다르게 검열 과정에서 별 무리 없이 검열을 통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미 알려진 여러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로 인하여 구활자본 고소설은 일제강점기에 호황을 맞았고, 출판사 별로 동일 작품이 난립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에 존재하는 구활자본 고소설에 대한 연구는 서지(書誌)에서부터 작품의 분석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고소설의 이본(異本)의 관점에서만 논의되어 왔었다. 이 자료들이 이제부터 단순한 이본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경무국 등에 제출하여 검열을 받았던 검열본과 납본이라는 사실을 새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要語: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650종의 구활자본 고소설, 고소설의 검열과 납본, 검열 양상 및 실태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8018866).

** 선문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sechaek@hanmail.net)

접수일: 2017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17년 12월 6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10일

서지학연구, 제72집, 363-375, 2017. [https://doi.org/10.17258/jib.2017..72.363]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650 ancient type settings existing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explains the fact that these materials were inspected and deposited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examined the censorship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ensorship.

According to the data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Old Type Textbook has been censored by submitting a manuscript published in advance, and it seems that most of the censorship has passed without much notic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date of publication in the license plate and the date of publication approval are almost identical

But the element of the main censorship of old style novels was on the cover. This can be seen through the *sehaepungpa*. The previous one was that the Japanese had been used as the cover, and the latter was the object of censorship because of the drawing of Taegeukgi.

In the case of the old type novel, it seems that the censorship passed through the censorship process unlike the contemporary literature, magazines, and socialist books. This is confirmed by several known statistics. Due to this, the old type textbooks boom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resulted in a situation where the same works were mixed up by each publisher.

In the meantime, the research on the old type textbook existing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as been studied from the book (bibliography) to the analysis of the work, and it has been discussed only in the viewpoint of the novel of the novel.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se materials are not only treated as mere jibbons but censored copies and deposits that were censored by submitting them to the jurisdiction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Key words: National Library of Korea, Korea Old novels, Japanese colonial period,
Censorship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1. 서론

이 글은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 연구의 하나로,¹⁾ 국립중앙도서관에 존재하는 구활자본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을 검토하고, 자료를 통해 드러난 검열의 특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고전소설 전공자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존재하는 구활자본 고소설에 대하여, 작품의 서지(書誌)에서²⁾ 작품의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³⁾ 연구의 핵심은 고소설의 이본(異本)으로서 구활자본 고소설이 지닌 의미 탐색에만 있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들은 이러한 관점, 특히 고소설의 유통(流通), 고소설의 출판사적(出版史的)의 측면에서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소장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이 자료들은 모두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경무국(警務局)과 학무국(學務局)에 제출되었던 ‘검열본’과 ‘납본’이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였던 1909년, 식민지 조선(朝鮮)에서는 출판법(出版法)이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모든 출판물은 검열(檢閱)을 받아야만 간행될 수 있었다. 그리고 승인을 받은 뒤에는 출판물을 반드시 납본해야만 했다. 고전분야 역시 이러한 출판법의 적용 대상이어서, 당시의 문집(文集), 족보(族譜), 방각본 소설, 구활자본 고소설(舊活版本 古小說)은 반드시 검열을 받아 허가(許可)를 받아야만 간행될 수 있었다.⁴⁾ 이 자료들을 학계에서는 “검열본”과 “납본”이라 부르고 있다.⁵⁾ 국립중앙도서관에 존재하는 650종의 구활자본 고소설은 바로 일제강점기 출판법이 시행된 뒤에 출간된 검열본과 납본들이다.⁶⁾

검열본과 납본 연구는 이제 식민지(植民地) 조선 연구의 핵심이 되었고, 국문학의 근/현대문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전문학, 족보(族譜) 등이 포함된 고전문 분야에서는 이처럼 다른 분과의 연구 경향이나 성과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앞서 언급했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 존재하는 여러 자료를 총독부에서 관리하고 보관했던 ‘검열본’과 ‘납본’으로 인식

1) 필자는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유춘동, “방각본 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44(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6. 6), 7-22.

2) 구활자본 고소설의 서지 연구는 이능우, 하동호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 있고, 최근에는 최호석에 의하여 집대성된 바 있다. 이능우, “고대소설 구활판본 조사목록,” 『논문집』 8(숙명여대, 1968). ; 하동호, “개화기소설 연구: 서지중심으로 본 개화기소설,”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국문과, 1972). ; 최호석, 『활자본 고전소설 서지 데이터베이스』 (보고사, 2017).

3)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 권순궁, 『활자본 고소설의 편목과 지향』 (보고사, 2000). 이외에도 구활자본 고소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다.

4) 유춘동(2016), 7-9.

5) 학술 용어인 검열본, 납본은 연구자에 따라 사용 어휘가 조금씩 다르고, 범위나 분야 또한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내용은 한만수가 다루었다. 한만수, “일제 식민지시기 문학검열과 원본 확정,” 『대동문화연구』 51(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53-54.

6) 이 사실은 2016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 “세책과 방각본” 특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해은, 김효경 선생님, 고전운영실의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확인한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하여 실본은 물론 DB에는 없는 자료들 또한 볼 수 있었다. 작업에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께 지면을 통해서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구활자본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의 문제를 살펴볼려 한다. 대상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존재하는 650종의 구활자본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이며, 이 자료에 의거하여 검열본과 납본의 실태, 자료를 통해 드러난 고소설의 검열 양상 등을 다룰 것이다.

2. 구활자본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의 실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출판법이 시행된 뒤로 검열과 납본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경무국(警務局)과 학무국(學務局)에서 도맡아 처리했다. 이렇게 두 기관에서, 검열의 모든 과정을 마친 자료들은 조선총독부에 이관된다.

그 이유는 1920년대 도서관의 장서(藏書) 확충을 위하여 “보관전환(保管轉換)”의 명목으로 보관하던 책들을 모두 옮겼기 때문이다. 이후 조선이 독립을 맞이하면서, 이 책들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대부분 소장되어 있다.⁷⁾



<사진 1> 검열본의 예, <증수춘향전(增修春香傳)>



<사진 2> 검열본의 예, <오관참장(五關斬將)>

7) 해방 정국의 혼란한 시기에 일부 자료는 시중으로 유출되었거나 도서관에서 자체 폐기한 경우이거나, 대여자가 반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가 흘러나왔을 여러 가능성이 있다. 검열본이나 납본 자료는 간혹 인터넷 경매사이트, 고서 경매전에서 볼 수 있다.

검열 과정에서 수정 사항 등을 기재한 검열본(檢閱本, 原稿本)이 출간을 원했던 해당 출판사로 다시 보내졌는데, 이 자료들은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 서울대 규장각, 연세대 중앙도서관, 고려대 중앙도서관, 화봉문고 등의 일부만 남아있고 자료의 대부분은 일실되었다.⁸⁾ 따라서 현재로서는 검열본과 납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국립중앙도서관이다.

일제강점기 검열본(원고본)과 납본 자료는 제시한 <사진 1>과 <사진 2>처럼 표지에 “檢閱濟”, “出版許可”, “登錄番號”의 도장이 찍혀 있고, 복본(複本)일 경우에는 따로 번호를 매겨 놓았다. 따라서 외형상으로도 보아도 검열본과 납본의 여부를 쉽게 판별해 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구활자본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은 총 650종이다.⁹⁾

검열본은 검열을 받았던 원본(原本) 1부, 검열을 통과한 뒤에 제출해야 했던 납본 2부를 합하여 각 작품별로 총 3부가 경무국과 학무국에 존재했었다. 하지만 현재 3부 모두가 존재하는 것은 드물고, 원본(검열본) 또는 납본 중의 하나의 형태만 남아있다.¹⁰⁾

이렇게 현재 남아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구활자본 고소설 650종의 검열본과 납본의 상황을 작품명, 발행처, 검열본(원고본)의 유무(有無), 납본의 유무, 검열 및 납본 사항(검열일자, 판권지 기재사항, 납본 번호)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작품명	발행처	검열 원고본	납본	검열 일자 및 주요 사항		
					검열일/납본일	판권지 기재사항	납본번호
1	노처녀 고독각시	광명서관	×	○	대정5년 9월 16일	동일	299
2	(선한문) 춘향전	동미서시	○	×	대정2년 12월 30일	동일	1
3	옥단춘전	박문서관	미상	미상	미상(검열장 및 판권지 낙장)		
4	(증수) 춘향전	회동서관 외	○	×	대정7년 3월 17일	동일	-
5	신 옥증가인	대창서원:보급서관	×	○	대정 7년 12월 24일	동일	-
6	(특별부쌍) 춘향전	조선서관	×	○	대정4년 12월 27일	동일	296
7	춘향전	대창서원	×	○	대정14년 12월 3일	동일	-
8	금낭이산	경성서적	×	○	대정15년 12월 20일	동일	-
9	방화수류정	박문서관	×	○	대정12년 12월 20일	동일	-
10	홍루지	회동서관	×	○	대정10년 11월 30일	동일	134
11	수당연의	회동서관	×	○	대정 7년 3월 18일	3월 19일	간행일 조정

8) 위의 서술 내용의 일부는 앞서 “방각본 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에 대한 연구”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을 재인용했거나 수정한 것이다.
 9)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개인이 자료를 기증(寄贈)했거나 유물 구입을 통하여 도서관에 수장(收藏)된 경우는 제외된 결과이다.
 10) 구활자본 고소설은 작품별로 3부 모두가 존재하는 것은 드물다. 반면에 필사본 한글 및 한문(漢文) 소설, 방각본 소설(坊刻本 小說)은 비교적 수량이 많은 편이다.
 11) 논문에서 650종 전체를 표로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다른 지면을 통해서 제시하기로 한다.

번호	작품명	발행처	검열 원고본	납본	검열 일자 및 주요 사항		
					검열일/납본일	관련지 기재사항	납본번호
12	오관참장	대창서원:보급서관	○	×	대정 7년 11월 20일	동일	448
13	(연정) 구운몽 상	유일서관	○	×	대정 15년 9월 18일	동일	296
14	(연정) 구운몽 하	영창서관:한홍서림: 삼광서림	○	×	대정 15년 9월 18일	동일	296
15	(고대소설) 구운몽	박문서관	×	○	대정 6년 2월 28일	동일	125
16	구운몽 상권	조선도서주식회사	×	○	대정 14년 11월 30일	동일	-
17	구운몽	조선도서주식회사	×	○	대정 9년 5월 25일	동일	103
18	(연정) 구운몽	유일서관	×	○	대정 5년 9월 18일	동일	296
19	(고대소설) 구운몽	미상	○	×	경무국 심사 자료: 대정 14년 10월		
20	(고대소설) 조웅전	대창서원:덕홍서림: 박문서관	×	○	대정 11년 1월 10일	동일	1
21	(고대소설) 조웅전	경성서적조합	○	×	대정 9년 1월 13일	동일	-
22	(고대소설) 조웅전	대창서원	×	○	대정 9년 12월 30일	동일	-
23	(고대소설) 조웅전	대성서림	×	○	소화 3년 10월 18일	동일	-
24	(고대소설) 조웅전	대성서림	×	○	소화 4년 12월 18일	동일	-
25	(고대소설) 조웅전	회동서관	×	○	대정 14년 10월 30일	동일	-
26	(고대소설) 조웅전	경성서적조합	×	○	대정 15년 12월 28일	동일	-
27	(고대소설) 조웅전	덕홍서림:한성서관: 신구서림	×	○	대정 6년 1월 5일	1월 6일	간행일 조정
28	(고대소설) 조웅전	화광서림	×	○	소화 10년 12월 15일	동일	-
29	금향정기	동미서시	×	○	대정 5년 1월 26일	동일	56
30	별주부가	조선도서주식회사	×	○	대정 14년 11월 20일	동일	404
31	금향정기	신구서림	×	○	대정 13년 11월 20일	동일	-
32	금향정기	신구서림	×	○	대정 13년 11월 20일	동일	-
33	별주부전	신구서림	×	○	대정 6년 6월 30일	동일	-
34	별주부전	신구서림	×	○	대정 5년 4월 28일	4월 29일	156
35	별주부전	회동서관	×	○	대정 2년 9월 22일	9월 25일	224
36	십생구사	조선도서주식회사	×	○	대정 15년 12월 20일	동일	-
37	십생구사	대성서림	×	○	소화 5년 10월 10일	동일	-
38	신유복전	성문당서점	×	○	소화 10년 11월 25일	동일	-
39	수양제향략기	신구서림	×	○	대정 7년 4월 22일	4월 20일	214
39	신유복전	조선도서주식회사	×	○	대정 14년 11월 30일	동일	-
40	십생구사	대성서림	×	○	소화 5년 10월 10일	동일	-
41	신유복전	회동서관	×	○	소화 2년 12월 23일	동일	-
42	신유복전	광문서시	×	○	대정 6년 3월 29일	동일	108
43	신강상연	미상	미상	미상	미상(검열장 및 관련지 낙장)		
44	(강상연) 심청전	신구서림	×	○	대정 12년 12월 20일	동일	-
45	(강상연) 심청전	신구서림	×	○	대정 6년 6월 10일	동일	-
46	(강상연) 심청전	신구서림	×	○	대정 11년 3월 3일	2월 28일	-
47	(강상연) 심청전	신구서림	×	○	대정 7년 2월 12일	2월 10일	-
48	심부인전	미상	×	○	미상(표지, 검열장 및 관련지 낙장)		

구활자본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

번호	작품명	발행처	검열 원고본	납본	검열 일자 및 주요 사항		
					검열일/납본일	관련지 기재사항	납본번호
49	강상연	신구서림	×	○	소화 7년 2월 25일	동일	-
50	강상연	세창서관	×	○	소화 9년 12월 20일	검열장 낙장	-
51	(한문현토) 구운몽	신구서림:유일서관	×	○	대정 15년 10월 29일	동일	335
52	(한문현토) 구운몽	신구서림:유일서관	×	○	대정 15년 10월 29일	동일	335
53	(한문현토) 구운몽	신구서림:유일서관	×	○	소화 2년 2월 25일	동일	-
54	(한문현토) 구운몽	신구서림:유일서관	×	○	대정 8년 11월 17일	동일	29
55	(한문현토) 구운몽	신구서림:유일서관		○	대정 6년 5월 31일	동일	-
56	조자룡전	회동서관	×	○	대정 14년 12월 20일	동일	-
57	삼국대전	영창서관	×	○	대정 7년 1월 30일	동일	-
58	삼국대전	영창서관	×	○	대정 7년 1월 30일	동일	-
59	삼국대전	영창서관	×	○	대정 9년 8월 26일	8월 25일	20
60	삼국대전	영창서관	×	○	미기재	대정 12년 12월 20일	-
61	삼국대전	영창서관	○	×	미기재	대정 10년 12월 20일	-
62	삼국대전	영창서관:세창서관	×	○	미기재	소화 10년 11월 10일	-
63	삼국대전	동양서원	×	○	미기재	대정 14년 11월 30일	-
64	숙영낭자전	신구서림	×	○	대정 4년 5월 30일	5월 31일	12
65	숙영낭자전	신구서림	×	○	대정 4년 5월 30일	5월 31일	12
66	(특별) 숙영낭자전	신구서림	×	○	대정 5년 1월 19일	동일	-
67	(특별) 숙영낭자전	신구서림	×	○	대정 5년 1월 19일	동일	-
68	(특별) 숙영낭자전	조선도서:박문서관: 광동서관	×	○	미기재	대정 13년 1월 19일	-
69	숙영낭자전	대창서원	×	○	미기재	대정 9년 1월 27일	수기(手記)
70	(특별) 숙영낭자전	경성서적조합	×	○	대정 12년 1월 15일	동일	-
71	(특별) 숙영낭자전	경성서적조합	×	○	대정 12년 1월 15일	동일	-
72	(특별) 숙영낭자전	대동서원:광동서관: 태학서관	×	○	대정 6년 11월 13일	동일	42
73	(고대소설) 숙영낭자전	한성서관	×	○	대정 5년 12월 25일	동일	-
74	(특별) 숙영낭자전	대동서원:광동서관	×	○	미기재	대정 7년 11월 27일	-
75	(특별) 숙영낭자전	미상	미상	미상	미상(표지, 검열장 및 관련지 낙장)		
76	(특별) 숙영낭자전	대동서원:광동서관	×	○	대정 7년 11월 7일	동일	-
77	(특별) 숙영낭자전	신구서림	×	○	대정 5년 11월 28일	동일	374
78	수호지	신문관	×	○	대정 2년 7월 19일	동일	-
79	(백포소장) 설인귀전 상	조선서관:동미서시	×	○	대정 4년 5월 20일	동일	-
80	(백포소장) 설인귀전 상	신구서림	×	○	대정 6년 7월 20일	동일	-
81	(백포소장) 설인귀전 하	조선서관:동미서시	×	○	대정 4년 5월 20일	동일	-

번호	작품명	발행처	검열 원고본	납본	검열 일자 및 주요 사항		
					검열일/납본일	관련지 기재사항	납본번호
82	(백포소장) 설인귀전 하	신구서림	×	○	대정 6년 7월 20일	동일	
83	(백포소장) 설인귀전 상	신구서림	×	○	대정 10년 11월 15일	동일	
84	(백포소장) 설인귀전 하	동미서시	×	○	대정 12년 12월 25일	동일	
85	(백포소장) 설인귀전 하	동미서시	×	○	대정 4년 6월 2일	동일	-
86	(고대소설) 양산백전	한성서관	×	○	대정 9년	동일	-
87	약산동대	광동서국:덕흥서림	×	○	대정 2년 11월 10일	동일	
88	약산동대	광동서국:덕흥서림	×	○	대정 2년 11월 10일	동일	
89	(고대소설) 양산백전	한성서관	×	○	대정 7년 11월 5일	동일	
90	(고대소설) 양산백전	유일서관:한성서관	×	○	대정 4년 12월 10일	동일	
91	(고대소설) 양산백전	영창서관	×	○	소화 3년 11월 20일	동일	
92	(고대소설) 양산백전	덕흥서림	×	○	대정 14년 10월 30일	동일	

(… 이하 분량을 고려하여 생략 …)¹¹⁾

위에 제시한 <표>처럼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650종의 구활자본 고소설은 (1) ‘檢閱濟’, ‘出版許可’라는 도장이 찍힌 검열본(원고본) 1부만 있는 것, (2) 검열본(원고본)과 검열에 통과한 뒤에 판권지가 부착된 납본까지 3부가 있는 것, (3) 검열본(원고본)은 없고 납본 2부만 확인되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¹²⁾

(1)의 대표적인 예는 『증수춘향전』, 『옥중가인』, 『오관참장』, 『삼국대전』, 『대담 강유실기』, 『오자서』, 『을밀대』, 『추천명월』, 『금상첨화』, 『서해풍파』, 『죄악의 씨』, 『소양정』, 『강명화전』, 『강상춘』, 『용매기연』이다. 이 책의 표지에는 ‘檢閱濟’, ‘出版許可’라는 도장이 모두 찍혀있다.

(2)의 대표적인 예는 『조웅전』, 『설인귀전』이다. 이 자료들은 모두 검열본(원고본) 1부, 검열에 통과한 뒤에 판권지가 부착된 납본 2부까지 총 3부가 존재한다. 이외의 모든 자료들은 (3)에 해당되는 것으로 작품에 따라 납본 1~2종이 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650종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출판 통계표를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작품들이 출간되었기 때문에,¹³⁾ 지금보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더 많은 검열본과 납본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실은 총독부의 경무국과 학무국에서 기재해 놓은 일련번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련번호가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지 못한 것이 많고 번호 상 대부분 결본(缺本)이다.

이러한 일제 강점기 도서관 측에서 자료의 소장 상황, 상태에 따라 복본(複本)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폐기하는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고, 해방과 한국전쟁을 맞으면서 사회의 혼란함으로 인하여

12) 이것은 방각본 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13) 한기형, 『미친 자의 칼 아래서』 2 (소명출판, 2017), 246-247.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인들에게 자료가 열람되고 반환되는 과정에서 회수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3. 구활자본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을 통해본 검열의 상황

650종의 구활자본 고소설의 검열본(원고본)과 납본 자료를 통해서 검열에 대한 몇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다. 먼저, 검열과 출간(발행)일과의 관계이다. 검열을 마친 자료는 책에다가 ‘출판허가’, ‘검열제’ 도장을 찍는다. 이때 몇 가지 경향이 자료를 통해서 보인다.

구활자본이 간행되기 시작했던 대정 2년(1913)에는 책의 검열을 마친 날짜와 판권지에 기재된 발행일이 적게는 2~3일, 길게는 1주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다수의 신소설(新小說)이나, 『춘향전』, 『조웅전』, 『오관참장』과 같은 작품들이다.

그러나 앞서 <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대다수의 작품들은 검열과 동시에 곧바로 출판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구활자본 고소설의 경우 검열이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구활자본 고소설은 사전에 출판 원고(原稿)를 제출하여 검열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인쇄본을 제출했고, 이때 미리 판권지에다 날짜를 기입했던 것이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만큼 출판업자들 사이에서 고소설의 검열이 쉬웠던 이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¹⁴⁾

그리고 검열은 『춘향전』, 『조웅전』처럼 유명한 작품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검열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소설의 경우 이와 비교해서 광범위한 작품을 대상으로 검열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구활자본 고소설 중에서, 검열을 통과한 ‘檢閱濟’, ‘出版許可’라는 도장이 찍혀있는 자료들을 보면 모두 내용에 대한 특별한 지적이나 교정 요구 사항 없이 그대로 책이 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진대방전』은 이와 달리, 간행본 전체에다가 빨간색 볼펜으로 × 표시를 했다. 이렇게 부적절한 판정을 받았던 것이 특정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인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그 이유는 당시 검열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출판사에서 간행했던 『진대방전』에도 동일한 검열의 표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특정 출판사의, 특정 작품 전체에 빨간색으로 검열을 했다는 것은 내용 검열 이외에 다른 사항이 간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진대방전』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구활자본 고소설은 검열을 쉽게 통과했고, 자신들이 원했던 정해진 출간일에 맞추어 무난히 출판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4) 그러나 일부 자료를 보면 검열 일자와 발행 일자가 차이가 있고, 이를 반영하여 판권지에다 수기(手記)로 날짜를 기입한 것도 존재한다.



<사진 3> 표지 검열의 예

그렇다면 구활자본 고소설의 검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래 제시한 <사진>을 보면 일제강점기 구활자본 고소설 검열의 핵심은 작품의 내용보다는 표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4> 표지의 태극기 사진



<사진 5> 표지의 일장기 사진

구활자본 고소설에서 표지가 등장한 것은 이전 시기 고소설의 유통과 비교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알록달록하고 색감의 표지, 내용의 일부를 짐작하게 하는 구활자본 고소설의 표지는 독자들의 시선을 끌고 구매로까지 연결시키는 구활자본 고소설의 관점에서 보자면 대단한 광고(廣告) 기법이었다. 따라서 구활자본 고소설의 표지는 구활자본 고소설을 간행하는데 있어서 출판업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이러한 구활자본 고소설의 표지는 검열을 담당하는 사람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3>의 『죄악의 씨』의 표지를 보면 일본 순사(巡査)로 여겨지는 인물이 죄인을 호송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검열관은 <사진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표지가 이상하니 제거하라”는 식의 검열 결과를 표지에 적어놓았다.

이처럼 표지를 대상으로 검열이 이루어졌던 것은 『서해풍파』에서도 볼 수 있다. 원래 표지는 거친 바다를 헤쳐 나가는 배에다가 태극기를 그려놓았지만 검열을 거친 뒤에는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日章旗)로 그림이 바뀌어 있다.

이처럼 구활자본 고소설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보다 표지였고, 표지를 통해서 드러내려 했던 사회 저항적인 태도를 검열을 통해서 제거했다.

이밖에도 구활자본 고소설 내용에 검열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겠지만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상은 이러한 정도이다. 구활자본 고소설의 경우, 근/현대문학과 잡지(雜誌), 사회주의 서적과는 다르게 검열 과정에서 별 무리 없이 검열에 통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미 알려진 여러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로 인하여 구활자본 고소설은 일제강점기 호황을 맞이했고, 출판사 별로 동일 작품이 난립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에 존재하는 구활자본 고소설에 대한 연구는 서지(書誌)에서부터 작품의 분석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구가 있었고, 고소설의 이본(異本)의 관점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단순히 이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일본 검열과에 제출했던 검열본과 납본이라는 사실을 새로 주지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이 글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존재하는 650종의 구활자본 고소설의 검토를 통하여, 이 자료들이 일제강점기 검열본과 납본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 자료들의 검열 과정, 검열의 특성 등을 살펴본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를 보면 구활자본 고소설은 사전에 출판한 원고(原稿)를 그대로 제출하여 검열을 받았고, 검열은 별다른 지적 없이 대부분 통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관련지에 기재된

날짜와 검열을 받아 출판 허가가 이루어진 날짜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활자본 고소설의 주된 검열의 요소는 표지에 있었다. 이것은 『최악의 씨』, 『서해풍파』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앞의 것은 일본 순사를 표지로 삼았다는 점, 뒤의 것은 태극기를 그렸다는 이유에서 검열의 지적 대상이 되었고 수정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구활자본 고소설의 경우, 근/현대문학과 잡지(雜誌), 사회주의(社會主義) 서적과는 다르게 검열 과정에서 별 무리 없이 검열을 통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미 알려진 여러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로 인하여 구활자본 고소설은 일제강점기에 호황을 맞았고, 출판사 별로 동일 작품이 난립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에 존재하는 구활자본 고소설에 대한 연구는 서지(書誌)에서부터 작품의 분석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구가 있었고, 고소설의 이본(異本)의 관점에서만 논의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단순한 이본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경무국 등에 제출하여 검열을 받았던 검열본과 납본이라는 사실을 새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한계는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토대로 구활자본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의 문제를 살핀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훨씬 많았던 자료 중의 일부를 대상으로 논의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실상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지면을 달리해서 다루기로 한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구활자본 650종.

권순금. 『활자본 고소설의 편폭과 지향』. 보고서, 2000.

김성철. “육당문고 소장 조선광문회본 고소설에서 드러나는 초창기 검열 양상과 검열 우회의 징후.” 『고전과 해석』 16(2014). 7-28.

박현호, 손성준. “한국 근대문학 검열연구의 통계적 접근을 위한 시론.” 『외국문학연구』 38(2015).

유춘동. “방각본 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44(2016).

윤대석. 『식민지 문학을 읽다』. 소명출판, 2012.

이상경. “조선출판경찰월보에 나타난 문학작품 검열양상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7(2008).

이승희. “식민지시대 흥행(장) 취체규칙의 문화전략과 역사적 추이.” 『상허학보』 29(2010).

이윤석. “금방울전 활판본 원고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26(2007).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이혜령. “식민지 검열과 식민지 제국 표상.” 『대동문화연구』 27(2010).

장 신. “1920년대 조선의 언론출판관계법 개정 논의와 조선출판물령.” 『한국문화』 47(2009).

- 정근식, 최경희. “도서과의 설치와 일제 식민지 출판경찰의 체계화.” 『한국문화연구』 30(2006).
- 정근식, 한기형, 이해령, 고노 켄스케, 고영란. 『검열의 제국』. 푸른역사, 2016.
- 정진석.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정진석. 『언론 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14.
- 최기영. 『대한제국시기 신문연구』. 일조각, 1991.
-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 한국영상자료원. 『식민지 시대의 영화검열: 1910~1934』. 한국영상자료원, 2010.
- 한기형. 『미친자의 칼 아래서』 1-2. 소명출판, 2017.
- 한기형. 『식민지 검열, 제도 텍스트 실천』. 소명출판, 2011.
- 한만수. 『잠시 검열이 있겠습니다』. 개마고원, 2012.
- 한만수. 『허용된 불은: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학』. 소명출판, 2015.

